

# 또래지위와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전공  
교수 이은혜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홍지연\*

## 1. 서론

### 1.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

아동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정서적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그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장되거나 자제되어 실제로 느끼는 것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아동이 사회화되면서 정서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능력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서의 개인적 의미, 유기체의 생존에 미치는 역할, 정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정서를 조직화된 적응적인 행동 체계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서가 갖는 역할과 기능에 관심을 가지는 입장으로, 정서를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Barrett & Campos, 1987). 실제로 아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의 정서 표현과 반응을 통해 자신의 정서 표현을 결정하고 평가한다. 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정서 표현은 사회적 증거와 목적에 맞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정서 조절의 의미를 가진다.

아동의 정서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성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 맥락적인 대인간 요인을 들고 있다.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서 경험 상황과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Harris, Olthof, Terwogt, & Hardman, 1987). 그리고 이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정서 추론과 정서 표출 규칙과 같은 정서 조절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개인 내적 요인 중 성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을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분노, 실망과 같은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Fuchs & Thelen, 1988; Hubbard, 2001;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 여아는 남아보다 슬픔과 고통을 더 많이 표현한다(Fuchs & Thelen, 1988; Zeman & Garber, 1996).

한편,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맥락적 요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또래 지위를 들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또래에게 인기 있는 아동이 정서 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가 높고(Garner, 1996), 또래의 사회적 의도를 잘 추론한다고 보고한다(Dodge, Murphy, & Buchsbaum, 1984). 또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은 정서 조절 능력이 낮으며, 더 공격적이고, 분노, 슬픔, 실망감과 같은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다(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Murphy, Losoya, & Guthrie, 2001; Hubbard, 2001; Underwood, 1997). 국내의 학령기 아동의 정서 표현과 조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 표출 규칙의 사용이나 정서 조절의 발달적 경향(이지은, 1997), 부모에게 표현하는 정서 조절(이복자, 1998), 정서 조절의 동기(이지선·유안진, 1999)에 대한 것들이고, 아동이 또래에게 표현하는 정서 조절이나 또래지위와 정서 조절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정서를 표현할 때 고려하는 타인이 또래일 경우,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이 학년, 성, 또래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동

이 또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정서의 사회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또래지위가 낮은 아동들의 정서 표현 특성을 파악하여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은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한 곳의 2학년, 4학년 아동 160명으로, 각 학년에서 인기 있는 아동, 보통 지위의 아동, 무시되는 아동, 거부되는 아동을 20명씩 남녀 동수로 선정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사회성 측정 검사

아동의 또래지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또래 지명법으로 사회성 측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에게 동성인 학급 또래의 명단을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 '자리를 바꾼다면 함께 앉고 싶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각각 세 명씩 지명하게 하고, '가장 싫어하는 친구', '함께 앉고 싶지 않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친구'도 각각 세 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 2)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

아동의 사회적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을 알아보기 위해 Underwood(1997)의 사회 정서 설문지(Social Emotions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한국 아동의 정서에 대한 연구와 정서 표현에 대한 연구(이복자, 1998)를 참고하여, 여섯 가지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정서 표현 조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완성하였다. 여섯 가지 정서는 기쁨, 자부심, 슬픔, 분노, 당황함, 실망이고, 질문은 제시된 가상적 상황이 본인에게 일어났을 때, 친구들 앞에서 정서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지 4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 3. 연구 절차

예비조사는 Underwood(1997)의 사회 정서 설문지(Social Emotions Questionnaire)에 포함된 정서 유발 상황이 우리 나라 아동에게 적합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2학년 아동 11명, 4학년 아동 12명 총 2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학년, 4학년 각각 다섯 학급에서 실시되었고, 한 학급에서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과 사회성 측정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이 또래지위, 학년,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래지위(4)와 학년(2)과 성(2)에 따라 삼원변량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증으로 t 검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1. 또래지위, 학년, 성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

<표 1> 또래지위에 따른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의 평균과 F 수치

성별 정서	인기 (n=40)	보통 (n=40)	무시 (n=40)	거부 (n=40)	F
기쁨	3.42 (.55)	3.03 (.73)	3.16 (.82)	3.15 (.70)	2.42
자부심	3.38 (.59)	3.20 (.91)	3.18 (.87)	3.05 (.99)	1.11
슬픔	2.23 (.92)	1.98 <sup>a</sup> (.92)	2.30 (1.02)	2.63 <sup>b</sup> (1.00)	3.40 <sup>*</sup>
분노	2.55 <sup>a</sup> (1.13)	2.43 <sup>a</sup> (.90)	2.78 <sup>a</sup> (.97)	3.50 <sup>b</sup> (.60)	11.57 <sup>***</sup>
당황함	1.65 (.89)	1.33 <sup>a</sup> (.57)	2.03 <sup>b</sup> (1.17)	1.95 <sup>b</sup> (.99)	4.64 <sup>**</sup>
실망	2.00 <sup>a</sup> (.88)	2.13 <sup>a</sup> (.88)	2.95 <sup>b</sup> (.78)	2.95 <sup>b</sup> (1.10)	13.34 <sup>***</sup>

( )안은 표준편차 \*p <.05 \*\*p <.01 \*\*\*p <.001

a, b Scheffé 검증 결과 유의한 차가 나타난 집단임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은 기쁨, 자부심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슬픔( $F_{3,160}=3.40$ ,  $p <.05$ ), 분노( $F_{3,160}=11.57$ ,  $p <.001$ ), 당황함( $F_{3,160}=4.64$ ,  $p <.01$ ), 실망( $F_{3,160}=13.34$ ,  $p <.001$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느 또래지위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M=2.63)이 보통 지위의 아동(M=1.98)보다 슬픔을 더 많이 표현하였고, 분노도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M=3.50)이 인기 있는 아동(M=2.55), 보통 지위의 아동(M=2.43), 무시되는 아동(M=2.78)보다 더 많이 표현하였다. 또래에게 표출하는 당황함의 경우에는 무시되는 아동(M=2.03)과 거부되는 아동(M=1.95)이 보통 지위의 아동(M=1.33)보다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고, 실망은 또래에게 무시되는 아동(M=2.95)과 거부되는 아동(M=2.95)이 인기 있는 아동(M=2.00)과 보통 지위의 아동(M=2.13)보다 더 많이 표현하였다.

<표 2> 학년에 따른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의 평균과 F 수치

정서	2학년 (n=80)	4학년 (n=80)	F
기쁨	3.11(.81)	3.25(.61)	1.56
자부심	3.40(.82)	3.00(.84)	9.93 <sup>**</sup>
슬픔	2.35(1.02)	2.21(.95)	.90
분노	2.63(1.07)	3.00(.90)	7.04 <sup>**</sup>
당황함	1.76(.98)	1.71(.94)	.11
실망	2.25(1.07)	2.74(.91)	10.76 <sup>**</sup>

( )안은 표준편차 \*\*p <.01

학년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은 자부심( $F_{1,160}=9.93$ ,  $p <.01$ )과 분노( $F_{1,160}=7.04$ ,  $p <.01$ )와 실망( $F_{1,160}=10.76$ ,  $p <.01$ )에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자부심에서는 2학년 아동(M=3.40)이 4학년 아동(M=3.00)보다 또래에게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으며, 분노는 4학년 아동(M=3.00)이 2

학년 아동(M=2.63)보다, 실망도 4학년 아동(M=2.74)이 2학년 아동(M=2.25)보다 또래에게 더 많이 표현하였다.

<표 3> 성에 따른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의 평균과 F 수치

정서	성		F
	남아 (n=80)	여아 (n=80)	
기쁨	3.13(.81)	3.24(.61)	1.04
자부심	3.16(.82)	3.24(.84)	.35
슬픔	2.04(1.02)	2.53(.95)	11.25**
분노	2.76(1.07)	2.86(.90)	.50
당황함	1.63(.98)	1.84(.94)	1.82
실망	2.43(1.07)	2.59(.91)	1.33

( )안은 표준편차 \*\*p <.01

성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은 슬픔 정서에서만 주효과( $F_{1,160}=11.25, p <.01$ )가 유의하였다.

또한 성과 학년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160}=8.05, p <.01$ ). 2학년 아동의 경우 여아(M=2.80)가 남아(M=1.90)보다 또래에게 슬픔을 더 많이 표현하였는데, 이는  $t$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02, p <.01$ ). 그러나 4학년 아동의 슬픔 표현에 대한 정서 조절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성과 학년에 따른 슬픔 표현에 대한 조절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년	성		전체 (N=160)
	남아 (n=80)	여아 (n=80)	
2 (n=80)	1.90(.95)	2.80(.79)	2.35(1.02)
4 (n=80)	2.18(1.05)	2.25(.84)	2.21(.95)
전체 (N=160)	2.04(1.02)	2.53(.95)	2.28(.99)

( )안은 표준편차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이 또래에게 표현하는 정서 조절에 대하여 결론과 논의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을 살펴본 결과,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거부되는 아동이 많이 표현하였고, 당황함과 실망은 거부되는 아동과 무시되는 아동이 많이 표현하였다. 반면 인기 있는 아동과 보통 지위의 아동은 또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많이 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거부가 분노, 실망,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조절과 관련이 있어 또래 지위가 낮은 아동이 더 공격적이고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한다는 연구들과 일관되는 결과이다(Hubbard, 2001; Underwood, 1997). 또래에게 인기 있는 아동이 정서 표출에 대한 이해가 높고(Garner, 1996), 또래의 사회적 의도를 잘 추적하며(Dodge et al., 1984), 부정적 정서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잘 조절한다는 견해(Eisenberg et al., 2001)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아동이 정서를 표현할 때 또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2학년 아동은 4학년 아동보다 또래에게

자부심을 더 많이 표현하였고, 분노와 실망은 더 적게 표현하였다.

결과를 해석하여 보면, 자부심에 대한 정서 표현 조절은 정서 표출 규칙의 발달적 경향이 적용되어 2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자신의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학년 아동이 2학년 아동보다 분노와 실망을 또래에게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결과는 몇몇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Underwood, 1997; Underwood et al., 1992). 하지만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정서에 대한 이해와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한다는 선행 연구들과는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이복자, 1998; 이지은, 1997).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와의 상치는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의 사회적 상황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까지 정서 조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아동이 실망,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를 교사, 부모, 권위자 등의 성인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회적 상황은 성인이 아닌 또래에게 표현하는 아동의 정서 조절이었고, 또래를 고려한 상황에서는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의 연령 차이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셋째,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은 슬픔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또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도 슬픔에서만 나타났는데, 2학년 아동은 여아(M=2.80)가 남아(M=1.90)보다 또래에게 슬픔을 더 많이 표현하였지만, 4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성에 따라 다른 사회화 과정이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정서 표현 방식과 맞물려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아는 슬픔을 더 표현했을 경우 타인들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의 표현이 지지를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식하지만, 남아는 같은 상황에서 슬픔을 표현한다면 오히려 타인들의 놀림을 받을 것이라 걱정을 한다(Zeman & Garber, 1996).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회적으로 슬픔을 많이 표현할 때 타인들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여아의 사회화 현상(Zeman & Garber, 1996)이 연령이 어린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 지역의 한 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인 정서 조절에 대한 것으로 확대시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한 측정을 자기 보고식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서 제한점을 찾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 관계 상호 작용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정서 조절 행동을 측정하거나, 자기 보고뿐만 아니라 또래 평정, 교사 보고, 부모 보고 등을 병행하여 조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또래지위, 학년, 성만을 살펴보았으나 그 외 아동의 기질, 성격, 생물학적 특성,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조절을 또래 관계 상황에서만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정서 유발 상황에 대해서 부모나 형제 등의 다른 사회적 맥락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여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차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복자 (1998). 아동의 정서 표현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분노와 슬픔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선·유안진 (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의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이지은 (1997).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rett, K., & Campos, J. (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A 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 In J.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2nd ed., pp. 555-578). New York:

Wiley.

- Dodge, K. A., Murphy, R. M., & Buchsbaum, K. (1984). The assessment of intention cue detection skills in children: Implications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163-173.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 Fuchs, D., & Thelen, M. H. (1988). Children's expected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communicating their affective state and reported likelihood of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9*, 1314-1322.
- Garner, P. W. (1996). The relations of emotional role taking, affective/moral attributions, and emotional display rule knowledge to low-income school ag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9-36.
- Harris, P. L., Olthof, T., Terwogt, M. M., & Hardman, C. E. (1987). Children's knowledge of the situations that provoke e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0*, 319-343.
- Hubbard, J. A. (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e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 1426-1438.
- Underwood, M. K. (1997).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3*, 610-634.
- Underwood, M. K., Coie J. D., & Herbsman, C. R. (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66-380.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